

# '행복 나눔, 한복 나눔' 캠페인 전국 확산

전주문화재단, 한복 기부 문화 활성화 모범 사례 주목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전주한복문화창작소의 한복 기부 캠페인 '행복 나눔, 한복 나눔'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전주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 관련 교육, 체험,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 나눔이 확산하며, 한복 기부 문화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부 물품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기부 중 약 90%



기부 한복

가 전북 외 지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품목은 한복뿐 아니라 노리개, 가방, 슬리퍼 등 소품과 한복 원단까지 다양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물품은 약 850점에 달한다. 전주한복문화창작소는 이렇게 모인 한복과 원단을 활용해 한복 리폼 교육 프로그램과 초·중·고 학생 및 외국인을 위한 한복 입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복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한복에 담긴 정성과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 캠페인이 더 많은 참여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한복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한복문화창작소 인스타그램(@jonju.hanb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경력단절예방지원 여성중간관리자 소통·치유의 장 열려

전북새일센터,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23일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제3회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중간관리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해결과 조직 내 리더십 역량 강화, 조직 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여성중간관리자들은 기업 조직 내에서 소통의 중심축이자 성과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경영진과 실무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 관계 조율의 피로감을 동시에 겪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간관리자는 "관리자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3일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제3회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의 권한은 제한적인데 책임은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갈등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참여자들은 기업 내에서 실제로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이해 충돌, 세대 간 갈등 등 팀 내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중재 및 소통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반려 식물 키우기, 연꽃 등 만들기 등 장기근속으로 지친 재직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 업무에서 벗어난 치유의 시간도 가졌다.

등 등 팀 내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중재 및 소통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반려 식물 키우기, 연꽃 등 만들기 등 장기근속으로 지친 재직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시 업무에서 벗어난 치유의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여성친화기업 산행 네트워크 진행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지난 22일 도내 60여 개 중소기업과 함께 진안군 마이산 일대에서 여성친화기업 산행 네트워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행은 임실군 내래식품(주), 순창군 한국세티(주), 진안군 유한회사 나눔푸드,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생가친(주), 장수군 (주)천본, 고창군 연경전자, 부안군 우주요양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7개 군 여성친화 유망기업을 비롯해 60여개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행을 통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채용과 취업여성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 참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예술과 함께하는 ESG문화경영 실천에 나섰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참여, 기관 내 공간을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우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공예문화협회(KCCA)가 참여하는 행사로 10월 15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 로비에서 개막했으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금속, 도자,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대여·전시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공간을 문화 친화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전시 참여를 통해 기관 간 협업과 공간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ESG문화경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4)

## 당골래와 재비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내일 모레 도산에서 당산제가 있다는데, 너도 올 거니?" 집으로 돌아오면서 명희가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가아지, 나는 아버지가 장구를 치면서 춤추는 게 너무 멋있어. 해해해." 두 아이가 걸어가며 남긴 발자국 위로 분설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강남준과 박명희는 무장면 월림리에 속한 마을에 살았는데, 남준은 무장읍과 가까운 봉림 마을에, 박명희는 봉림에서 1킬로미터쯤 떨어진 황전마을에 살았다. 봉림은 강 씨들이 주로 살았고, 황전은 박 씨 성을 가진 집들이 많았다.

남준이 명희와 헤어져 막 집으로 들어갔는데, 토방에 신발 여러 켤레가 놓여 있었다. 문밖에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안방 문이 열렸는데, 방안에 명희의 아버지 박규환과 어머니 연기택의 얼굴이 보였고 그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남준은 박규환과 연기택에게 고개를 납작 숙여 큰소리로 인사를 하고 방금 명희와 헤어졌는데 데려올까요, 하고 물었다. 남준의 어머니 신동택이 나서서 어서 데려오라고 하여 남준은 뒤돌아서 달려나가 명희를 불러왔다.

"배고플 텐데 왜 이제야 와. 추운데 어서 들어와라." 남준의 아버지 강병도가 남준과 명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라." 남준보다 세 살 어린 여동생 남주와 네 살 어린 박명희의 남동생 명철도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신동택이 어느새 고봉으로 보리밥을 담은 사기밥그릇과 모락모락 뜨거운 김이 피어나는 시래기 된장국을 들고 들어왔다.

"어서 먹어라. 얼마나 배고파."

남준과 명희는 부리나케 상으로 달려들어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가득 퍼서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두 부부가 잠시 수저질을 멈춘 채 흐뭇한 미소를 얼굴에 담고 두 아이의 밥 먹는 모양새를 바라봤다.

"팽매기(팽과리)하고 쟁(징)은 잘 있겠지?"

"공목으로 잘 써서 소금하고 숯을 같이 넣은 가마니에 담아서 저 광 바닥을 파고 묻어놓았는데 어제 파보니까 괜찮더라고."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원."

"구시포쪽하고 영광 홍농 해안에 토굴을 파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해안포를 보관한다고."

"미국 비행기가 여기까지 날아오는 걸 보면 흘러가는 전황이 일본 놈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굿패들한테서 팽매기나 쟁을 빼앗아가지. 무기를 만들 쇠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어째든 내일부터 하는 도산마을 곳이 아무 탈 없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연기택도 열심히 치성을 드렸으니 별일은 없을 거야."

남준의 아버지 강병도와 어머니 신동택, 명희의 아버지 박규환과 연기택은 내일 있을 곳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모양이었다.

신동택과 연기택은 당골래였으며 강병도와 박규환은 당골을 보좌하는 재비였고, 굿패에서 활동을 했다. 강병도는 굿패에서는 주로 장구를 다뤘고, 재비일 때는 피리나 새납을 담당했다. 박규환은 굿패에서는 북을 담당했고, 역시 재비일 때는 다른 악기들을 연행했다.

신동택과 연기택의 가계는 점을 입암과 고창읍에서 오랫동안 당골을 이어온 집안이었고 딸들인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업을 계승했다.

강병도와 박규환의 집안도 역시 당골로 내려온 집안이었다. 이들은 정월 열사흔날부터 시작되는 월립리 서북쪽에 잇대어 있는 송계리 도산마을에서 연행되는 당산곳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암 치료 잘하는 병원

# 대장암 · 위암 · 폐암

치료를 가장 잘 하는 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 1등급 획득

원광대학교병원은  
대장암, 위암, 폐암  
치료를 가장 잘 하는 병원입니다.

대장암  
7차 연속

위암  
6차 연속

폐암  
5차 연속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속! 전주매일 창간